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2010년 8월 고용시장 분석

2010.9.16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
2. 수출증가로 인한 긍정적 지표,
계속될 수 있을까?
3. 줄어드는 기저효과
4. 심각해져만 가는 청년층 고용상황
5. 글을 마치며



<http://saesayon.org>

요약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고용지표라 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고용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긍정적인 고용지표의 원인이 수출과 기저효과라는 점은 향후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란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도록 한다.

우선 최근 경제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출증대의 경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원화가치 하락이기 때문이다.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액 규모에서 2009년 세계 9위였고, 2010년에는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격한 수출증대의 원동력에 대해 많은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원화가치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원화가치가 회복할 경우 이전과 같은 수출 수준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더블딥이나 남부 유럽국가들에서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수출의 감소는 고용지표 악화를 낳을 것이다.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 역시 앞으로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도록 한다. 현재의 긍정적인 고용지표는 경제가 좋지 않은 작년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고용상황은 좋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금의 긍정적인 고용지표는 고용성장이라기보다 고용회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저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하반기부터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고용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면,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출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외될 경우, 고용증가율이나 취업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거나 정체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후 고용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이 1.2%p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만 가지고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용율의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이들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위기 이 후 청년일자리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실제 이들로 하여금 비경제활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은 결혼과 출산의 저하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및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과 결합된 실업급여제도 등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문

1.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

9월 15일 통계청은 2010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8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2,400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8만 6천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 및 투자의 지속적 증대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건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제조업 29만 7천명, 보건 및 사회복지 18만 9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 11만명, 건설업 10만 9천명 등 다수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1만 4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9만 4천명), 농림어업(3만 5천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과 동일했고, 실업자는 8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가 감소한 3.3%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관련해 통계청은 경기호조세 유지와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령계층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이슈화되었던 청년층의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1.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58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2천(1.1%p)이 늘어났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가사(20만 4천명), 재학·수강 등(8만 3천명), 연로(3만 9천명), 쉬었음(1만 8천명)과 같은 활동은 증가한 반면, 육아(14만 8천명), 심심장애(2만 1천명) 등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구직단념자는 2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25.1%)이 증가하였다.

2. 수출증가로 인한 긍정적 지표, 계속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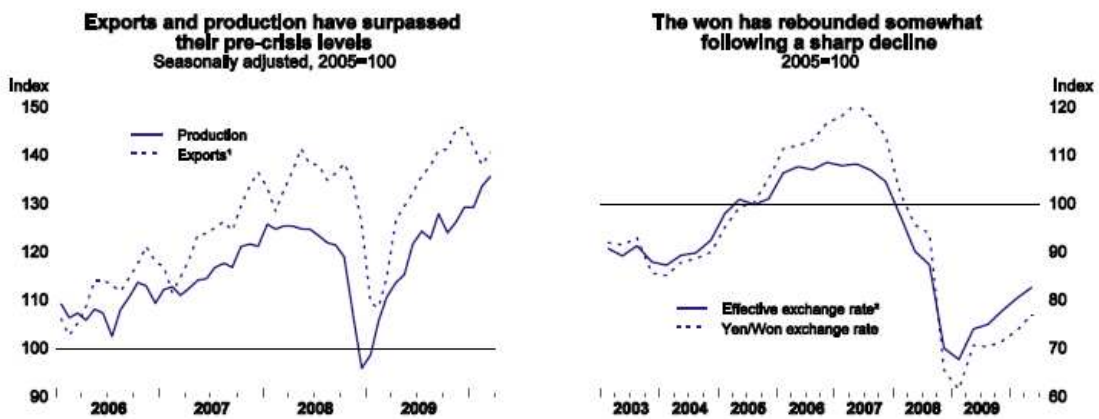
통계청이 고용관련 지표들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년동월을 기준으로 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고용률,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 4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5월 400만명을 다시 회복했고, 이 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제조업 고용증가로 인한 서비스산업에의 파급효과, 건설투자 증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고용 증가 추세가 더해져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계속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던 수출증가가 지속될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WTO의 2010년 상반기(1월~6월) 세계수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액(규모)에서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다른 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속에서 수출증가를 보이며 처음으로 9위로 10위권 내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동기대비 34.4%의 수출액 증가를 보이며 7위로 순위가 상승한 것이다. 전년대비 이와 같은 급격한 수출증가는 10위권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는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에 기인한다는 분석들이 많다. 실제 OECD도 2011년 한국의 GDP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변화와 생산, 수출을 나타

[그림 1] 한국의 생산, 수출 변화와 원화 가치 변화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2010, Issue 1.

내고 있다. 원이 수출, 생산의 변화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원화가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원화가치가 하락한 기간 수출증대와 생산증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회복된다면(상승한다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산과 고용증가의 기반이었던 수출 감소는 향후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어렵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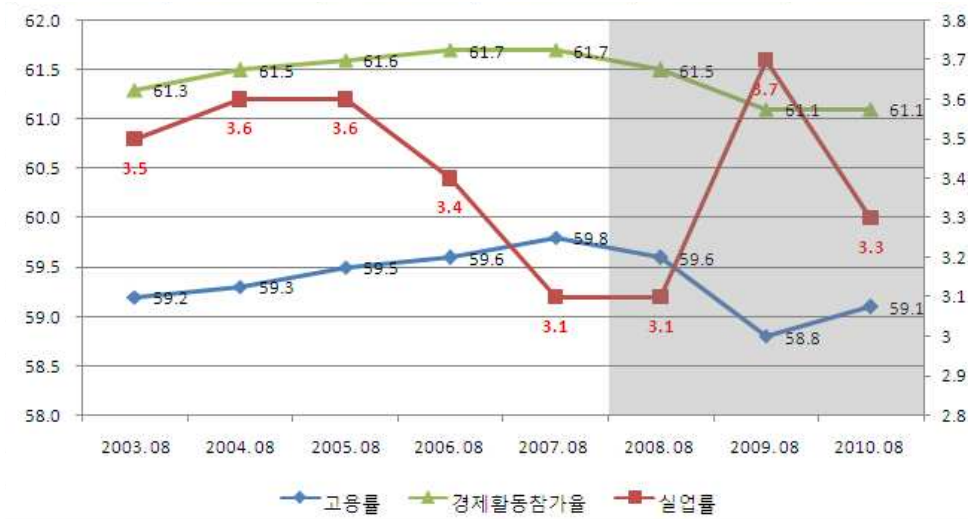
국외적 상황, 세계 곳곳에 도사린 경제적 불확실성 또한 수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거나 남부유럽국가에서 새로운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더블딕이 구체화될 경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는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줄어드는 기저효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서 고용지표를 긍정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전년동월,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이라는 말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기보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이 아니라 아직까지 회복국면에 있는 것이다. 불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기저효과라 한다. 최근 고용지표 개선과 관련해 기저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주장들이 많다. 통계청 역시 지금의 긍정적인 고용지표는 수출과 함께 이러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2]는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우리나라의 주요 고용지표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을 비교 가능하도록 매년 8월 자료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따르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두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8월과 비교하면 고용의 증가로 고용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2009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2010년 8월 고용률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나아졌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 수준보다 못한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활인구의 증가로 인해 좋지 않았던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월대비로 볼 때는

[그림 2] 한국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2007년과 비교하면 나빠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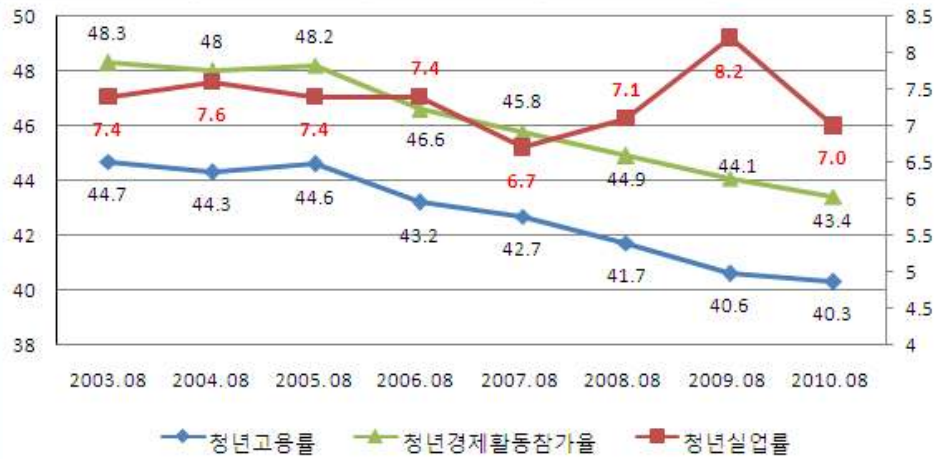
이러한 기저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고용관련 지표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복에는 앞서 말한 수출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다면 과연 기저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이러한 고용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수출 등의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면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 성장은 둔화되거나 정체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표자체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득-소비-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심각해져만 가는 청년층 고용상황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고용상황이 작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우 좋지 않은 고용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림 3]은 청년층의 중요 고용지표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을 나타낸다. 실업률의 경우 전년동월 8.2%보다 확실히 낮아져 올해는 7.0%를 기록하고

[그림 3]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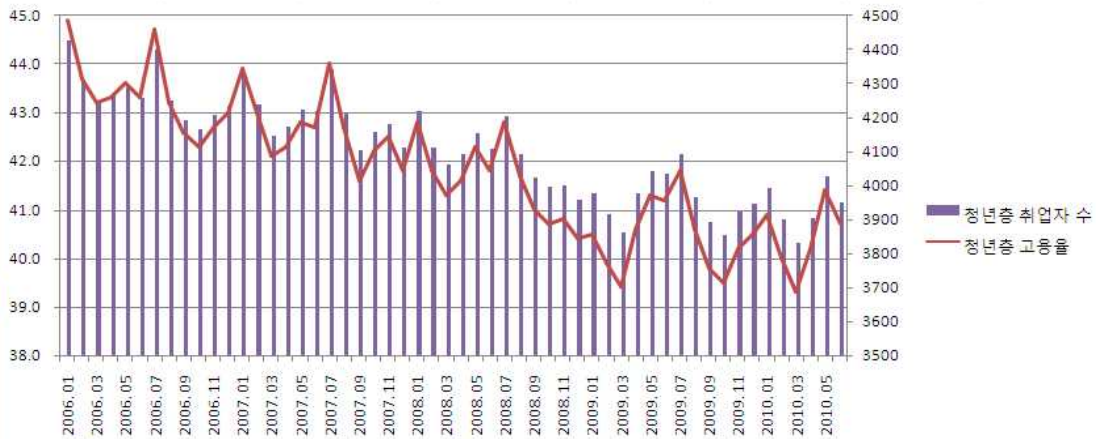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들의 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니트(NEET)족¹⁾이나 켄거루족²⁾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로 인해 실업률은 고용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이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취업을 포기할 경우, 그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게 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업률 저하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데, [그림 3]을 보면, 2010년 8월 실업률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업률 감소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 면에서 고용률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고려해, 그들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준다. 고용률 역시 단점이 있지만, 이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은 고용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

1) 니트족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2) 켄거루족 :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

[그림 4]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출처 : 김수현 (2010) 청년 워킹 푸어 증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청년층의 고용률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부터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자도 감소추세를 보인다([그림 4] 참조). 이는 불황기나 경제위기가 예상될 경우, 기업들은 교육훈련이나 장기고용이 요구되는 청년층의 고용을 줄이고 바로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청년층에 대한 고용감소가 금융위기 이후 다른 연령층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계속될 경우 문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를 선택하게 되는 청년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3]을 보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감소와 함께,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제시되는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 역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노동자 중 저임금인 경우는 30.74%로 중장년층 23.25%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비정규직³⁾의 비중이 청년층은 52.02%, 중장년층은 4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직면하는 일자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가리킨다.

3) 여기서의 비정규직은 현재 노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김유선(2009)의 개념을 따른다. “김유선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149.”를 참조할 것

좋지 않은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다면, 가구 내 다른 소득원이 있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가 제공되기 전까지 일자리 선택을 유예시키기도 한다. 최근 부모 등 다른 가족구성원이 소득을 가질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졸업을 연기하거나, 졸업 이 후 학교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고도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안 되면, 낮은 임금에 취업을 하거나, 니트족이나 켄거루족의 형태로 비제활동인구로 남는 선택을 한다.

청년층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이처럼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일자리나 일자리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혼을 생각하고, 이 후 교육비나 보건의료비 등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해야 하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채를 짊어진 청년층들에게 저임금 일자리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현재 금융위기는 청년층의 일자리 자체는 줄이고, 좋지 않은 일자리는 늘어, 이들로 하여금 비경제활동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 자체로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의미지만, 결혼과 출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5. 글을 마치며

통계청의 2010년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우리의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이 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나 기저효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기저효과 감소나 원화가치 회복(상승), 미국의 더블딥 등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고용지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용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희망근로나 건설업 중심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일자리를 통한 내수진작을 통해 외부적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요구된다. 전년대비 1.2%의 실업률의 감소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는 현실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층의 이와 같은 현실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대기업에의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비경활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는 실업급여 제도로의 전환 등을 통해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수현 (2010) 청년 워킹 푸어 증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새사연 보고서.

김유선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149.

통계청 (2010) 2010년 8월 고용동향

OECD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Issue 1, OECD.